新年辭

5·18 완전한 진상 규명으로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십이지(十二支)의 첫 번째 동물인 쥐의 해다. 쥐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 부지런함과 총명함이 저성장, 저출산에 진영 갈등으로 시름겨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원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참으로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6월 북미 정상의 극적인 판문점 회동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핵화 방식에서 일괄타결의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했다. 양측이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북핵 위기는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1년 내내 극한 대치를 거듭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는 폭력 사태를 빚으며 '동물 국회'를 다시 연출했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갈라놓았다.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이 공세에 나서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국 사태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구조는 젊은이들의 거센 분노를 유발했다. 이와 맞물려 서초동 '검찰 개혁 촉구' 집회와 광화문 광장의 '조국 사퇴'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타협과 조정은커녕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격돌했다. 극심한 진영 갈등에 제도 정치가 실종되면서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호남 지역민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올해는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1960년 전국 최초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금남로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에 나서 4·19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 광주 3·15 의거와 4·19 혁명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그리고 4·19 정신을 이어받은 오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봉화이자 이정표였다. 80년대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및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동력으로서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40돌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5·18 진실 규명은 지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난 40년간 이 땅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온 주요 의제였지만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검찰 수사,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네 차례의 조사에도 핵심 진실들은 아직도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5·18 직후부터 전두환·노태우 장권이 국방부와 보안사 등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군 기록을 집요하게 왜곡·조작·폐기해 버렸고, 계엄군 지휘관 등 관련자들도 침묵의 카르텔 속에 거짓과 왜곡된 증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부실 조사는 일부 극우 세력의 자양분이 되어 5·18을 왜곡·폄훼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전두환 회고록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이 바로 그것이다.

다행히 지난 2017년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 193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상 규명 요구가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이는 특별법을 제정해 5·18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모아졌고 1년여의 논란 끝에 2018년 2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을 맡을 독립 기구인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해 말에야 마무리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진상조사위는 핵심 의혹으로 남아 있는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인권 침해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조사위의 진상 규명 활동에는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진 데다 군 기록들은 '가짜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탁이 되어 버렸고, 가해자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조사를 교훈 삼아 보다 치밀한 기법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나 일본 등과의 외교문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 사례처럼 상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 경우 사면을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행방불명과 암매장의 경우 지난해 옛 광주교도소에서 기록에 없는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견되면서 5·18과 관련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5·18 행방불명자 신고는 242명에 달하지만 심사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84명. 그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78명에 불과하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40년이 다 되도록 사라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년이며 1년을 추가할 수 있다. 특별법은 진상 조사가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공인하는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오면 5월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번 조사는 5·18 진상 규명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5월 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전방위적 지원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5·18'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다.

올해는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한 해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호남인들은 역대 선거에서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 주었고 예외 없이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정치 세력을 선택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했다. 선거 때면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등 선거 제도 변화와 신당 창당 움직임 등 변수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

이제 지역 현안을 점검해 보자.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엊그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착공으로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고, 도시철도 2호선도 공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한전공대 유치에 이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이러한 사업들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은 시도가 상생과 동반 성장의 지혜를 발휘해 풀어야 하겠다.

광주일보는 올해로 창사 68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펴며 지역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고자 한다.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새해 아침,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서효인의 '소설처럼'

일과 당신 -김혜진 '9번의 일'

'딸에 대하여'를 읽은 독자라면 김혜진 작가에 대한 애틋한 신뢰를 이미 갖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취재. 등장인물 누구도 허투루 배제하지 않는 섬세한 구성. 거기에 약자와 소수자의 손을 맞잡는 윤리적 태도까지…. 최근 한국소설이 특히 필요로 하는 덕목을 김혜진 작가는 두루 갖추었다.

주변부로 밀려난 여러 세대의 여성과 가족에게 환영받기가 더 힘든 여성 퀴어 이야기를 다루었던 '딸에 대하여'에서 소설의 동력은 인물들의 '일'이다. 딸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를 전전하며 이제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싸운다. 어머니는 역시 비정규직으로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며 죽음을 앞둔 '젠'을 만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이룬다. 젠은 한때 사회적 존경을 받던 활동가였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거나 예전에 했었던 일(직업)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 생활에서도 직업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쩌면 직업이 전부인 사람도 많다. 누구나 인간 아무개라고 부르기보다 작가 아무개, 공무원 아무개, 의사 아무개, 환경미화원 아무개라 부르는 편에서, 그 아무개의 정체를 발견하는 데 편안함을 느낀다.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속물이어서가 아니다. 이름 앞에 붙는 그의 직업이 실제 그의 정체성이 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딸에 대하여'에서의 딸 또한 딸이자 여성이자 퀴어인 만큼, '인문 계통 전공자인 대학 시간강사'라는 그의 형편이 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작가 김혜진은 최근 소설 '9번의 일'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때로는 존재마저 지배하는 '일'의 본질을 소설의 정중앙에 배치한다.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거세게 끌어내 앉힌 것이다.

첫 문장은 이렇다. "그는 수리와 설치,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회사 현장 팀에서 26년을 일했다." 이 짧은 문장이 그에 대해 알려주는 바는 생각보다 많다. 이 소설 안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그는 회사의 성장을 함께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정작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잘라내야 할 정리 대상일 뿐이다.

인사 관리자는 깍듯한 듯하지만 냉정하게 퇴사 조건을 설명한다. 관리자의 말대로 그 조건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쯤 그만두어야 앞으로 닥칠 고난과 수치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점점 한직으로 내몰릴 것이다. 급여가 깎일 것이다.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낯선 곳에서 일할 것이다. 그동안 안 해 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일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잊을 것이다. 회사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실제로 그는 그렇게 된다. 그 나이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엇비슷한 방식으로 닥칠 법한 경제적인 사유가 그를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 실패한 부동산 투자,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고향의 노모와 형…. 하지만 그가 일을 그만두지 못함은 그걸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일이 곧 자신이었다. 일을 관두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끝내 사직서를 내지 않음은 그에게는 곧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일로 보인다.

현장에서 통신기기를 잘 수리하던 그는 난생처음 해 보는 영업 일에도 본인의 장점을 살려 그 일을 해 보려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금 그에게 바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그저 이 회사를 나가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뿐이다. 그에게 회사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었으나 그는 회사에서 단지 숫자의 조합에 불과했다. 회사는 누군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수십억의 가압류를 통보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9번이 된다.

그는 소설 말미에 이르러 '아무개 씨'에서 '9번'으로 정체를 바꾼다. 그는 끝내 이런 원성어린 질문도 받는다.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오? 회사 수족이요? 개요? 당신은 생각할 줄 몰라?" 78구역에 철탑을 설치하며 그는 실제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심지어 사람으로 아니 보이기까지 한다. 길을 잃고 다닌 (진짜) 개를 돌보고 주인을 찾아 돌려줄 때 그는 잠시 사람인 듯하지만, 일의 안쪽에 들어와 그는 다시 9번이다.

'아무개'에서 '9번'이 될 때까지 그는 어쩌자고 거기까지 간 것일까. 그는 떠밀렸을 테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그 떠밀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래도 다시 아침이면 출근길의 버스와 전철에 오른다. '*** 아무개'가 되어, 혹은 '9번'이 된 채로.

〈시인〉

無等鼓

송아지와 잠든 사연

지난 연말 출근길 전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6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얼마 전 송아지를 껴안고 잠이 든 사연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일하러 우리에 들어갔다 추운 날씨에 송아지를 껴안은 채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 보니 아기 소를 지키듯 엄마 소도 옆에 같이 잠들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젖을 짜러 가면 발길로 차고 곁을 내주지 않던 엄마 소가 그날 이후 순순히 젖을 짜도록 해 주더란다.

그는 그날 밤 따뜻했던 송아지의 품과 엄마 소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세상 사는 게 뭐 별거냐.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날 따뜻하게 해 준 그 송아지처럼 살면 좋겠는데" 하며 허허 웃었다. 아마도 그날 전철 안에서 나처럼 이 이야기를 들은 이가 있다면 작은 삶의 지혜 하나를 얻은 듯했을 것 같다.

시민들이 기증한 책과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세상을 따뜻하게 비췄던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헌책방이 10년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폐점식에는 활동 천사 등 책방과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추억을 함께 나눴다. 폐점 관련 기사를 위해 개점 때부터 써 왔던 기사와 사진들을 보니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해 온 게 느껴졌다.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된 담당 간사의 앳된 모습도 반가웠다. 그녀에게 사진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도 결산을 준비하며 옛 자료를 봤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고,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었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초심'(初心)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처음처럼' 중)이라 했던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초심'이라는 단어가 꼭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터.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했던 마음, 이리저리 재는 것 없이 앞으로 달려가던 마음, 그것이면 족할 것 같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송아지의 따뜻한 품이 되는 것도 마음에 새기면 세상은 좀 더 살 만하지 않을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겨울철 낙상

이현민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광주에는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주위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겨울철 기온이 떨어질 때는 길이 얼어붙기 때문에 미끄러운 빙판길로 인한 낙상 사고가 증가하게 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낙상으로 인한 119구급차 이송 건수는 65만 4405건이고 월별 평균 이송 건수는 12월이 1만 982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겨울철 낙상 사고 비율이 11% 높았고, 연령별 낙상 환자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집중되며 70대가 19%로 최고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인대 및 뼈의 구조가 약해 낙상으로 인한 부상 비율도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특히, 노인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타 연령의 열 배에 달하며, 이외에도 중증의 손상으로 인해 오랜 입원과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21%가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36% 이상이 2주 이상 입원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낙상이 겨울철 그리고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낙상은 신체 건강 및 행동상의 문제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각, 운동,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반사 반응, 균형 능력, 보행 기능 등이 저하돼 낙상 사고의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와 혈압 강하제나 수면제, 이뇨제 등 약물 복용 환자의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 도로, 상업 시설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실내의 경우 화장실과 방의 물기 등과 어두운 침실에서 화장실로 급하게 이동할 때 많이 발생하며, 실외의 경우 지면 위의 물이나 얼음, 눈 등 미끄러운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

겨울철 낙상 사고를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가피하게 외출하게 된다면 첫째, 장갑을 끼고 둔한 옷을 피한다. 추운 겨울은 손이 시려 주머니에 손을 넣기 마련이다.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걷다 넘어지게 되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빼서 바닥에 집기가 어려워 크게 다치게 된다. 또한 움직임에 지장을 주는 두꺼운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보폭은 짧게 걷는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걸을 때는 보폭을 짧게 하고 상체를 조금 숙여 걸으면 지면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몸의 중심을 낮추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심을 잡기가 수월해진다.

셋째, 외출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추운 겨울 우리 몸은 굳어있게 마련이다. 외출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우리 몸의 반응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근골격계의 손상을 줄여 줄 수 있다.

넷째, 밝은 곳으로 걷는다. 실외의 경우 햇볕 드는 곳으로 걸어 빙판으로부터 피해야 하며, 실내의 경우 적절하게 조명을 배치하고 욕실 앞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꾸준히 운동한다. 특히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감각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하면 넘어지더라도 근육으로부터 뼈를 보호받아 골절의 위험성이 낮아지게 된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 부모님께 장갑 한 켤레와 테이블 조명 한 세트 장만해 드리면 어떨까?

소방시설은 안전 필수장치…화재 예방 나부터 실천하자

우리의 바람은 항상 가족의 건강, 학업과 일에 대한 성취, 금전적 보상에 대한 열망에만 있는 듯하다.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에 대한 소망의 부재에 늘 안타까움이 있다. 주변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시작점은 관심이다. 우리가 흥미가 없는 기사나 사건들은 모르고 지나가듯 안전에도 관심이 없다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관심은 안전 시설을 확보하고 대응 방법을 구상하는 등 철두철미한 대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곧 관계자의 관심이다. 소방 시설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안전 관리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감지기가 어디 있는지, 비상벨은 어디서 울리는지, 수신반은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만으로도 안전관리의 반은 시작이다.

간혹 안전을 돈에 비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방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방 시설은 투자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장치다. 화재 위험 예방은 멀리 있지 않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 가족, 내 직장과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경자(庚子)년 새해에도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